

# 김선도 교장 '대한민국 인성시민교육대상' 수상



장흥관산중학교 김선도 교장이 최근 '제10회 대한민국 인성시민교육대상' 개인 부문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상을 수상했다.

## 장흥관산중 김선도 교장, 아름다운 품성 함양 교육·치유...포상금 기부

'대한민국 인성 시민교육대상'은 2013년부터 학교·가정·사회가 함께하는 실천적 인성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개인, 기관·단체 및 학교를 발굴해 포상·격려하는 상으로 교육부, 여성가족부, 중앙일보 공동주최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공동주관 한다. 수상 선정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성시민교육의 실천 배경과 목표, 세부 내용 및 방법, 프로그램의 우수성, 실천 결과와 공헌도 등을 종합해 1차 서류심사, 2차 면담 및

현장심사, 3차 발표심사 과정으로 한다. 김선도 교장은 '아름다운 품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 치유'라는 주제로 가정·학교·지역사회에 창의적이며 미술 치유적인 방법으로 수업 및 생활지도, 개인·집단미술치료 등의 공적을 인정받았다. 또한 미술치료 기법을 개발·보급하며 다양한 활동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점이 높이 평가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교장은 "학생들에게 미술치료와 인성교육 등을 통하여 아름다운 품성을 함양하도록 하며, 사랑과 나

눔을 실천할 수 있는 치유학교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장은 지난 '제38회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미술교육의 실천과 민주적인 학교 조성,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로 육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지난 2021년에는 '이웃·나눔전' 미술작품 개인 전시 판매 수입금 전액 기부와 국내·외에 나눔을 실천한 공을 인정받아 '제12회 광주·전남 사회공헌대추전' 대상을 수상했으며, 이번에도 포상금 전액을 기부했다. /장흥=임민기 기자

### 포토뉴스



함평중 '역사·문화 골든벨 울려라' 운영 함평중학교는 지난 9일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기억하고 다짐하는 역사·문화 골든벨을 울려라를 실시했다. 이날 학생들은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 및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해 과거로부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함평인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함평=김용희 기자

## 광주시교육청, 달빛 역사교류 첫발...역사교육 협력

교원 30여 명, 대구·경북 역사문화 현장체험 연수 실시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8~10일 교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달빛 역사동맹의 서막을 여는 대구·경북지역 역사문화 현장체험 연수를 실시했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

수는 이정선 교육감이 밝힌 빛고을 광주교육청과 대구·경북지역의 역사교육 협력방안인 달빛 역사동맹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계획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9월 한빛 호남의 병장들이 순국한 옛 대구 감옥 터를

방문해 참배하고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을 만나 양 지역의 역사교육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1일 차는 광주전남 지역 의병장들의 항일 훈이 서린 대구시 삼덕동 옛 대구감옥터를 찾아 순국 의병장들을 기리며 현화하고 묵념했다. 이어 학생독립운동과 더불어 학생이 역사의 중심이 됐던 대표적인 운동인 대구 2·28민주운동 현장을 찾았다. 2일 차는 오미마을, 경북독립기념관, 임청각 등 경북 지역의 항일 관련 사적지 현장 탐방을 진행했다. 3일 차인 10일에는 병산서원, 하회마을 등 경북 지역의 삶과 선비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유적지 현장 탐방을 진행하며 연수를 마무리했다. /김도기 기자

## 최현구 신임 한빛원전본부장 "원전 안전운영·신뢰 강화"



최현구(58) 한국수력원자력(주) 설비기술처장이 12일 제25대 한빛원자력본부장으로 취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최현구 신임 본부장은 취임사에서 "본부 모든 발전소의 안전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인 사회적 가치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와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정과 화합의 기업문화를 형성해 자긍심 넘치는 본부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 신임 본부장은 "지난 11일 발전 재개한 한빛4호기의 안전운영에 만전을 기해 지역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며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신뢰 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신임 본부장은 1964년 전남 해남 출생으로 1982년 2월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해 처음으로 원전과 인연을 맺었다. 그간 한빛본부 제2발전소 전기부장, 한울본부 제2발전소 기술실장, 본사 엔지니어링처 설비개선팀장, 설비기술처장 등 회사의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영광=서종민 기자



광양시,故 이균영 작가 문학비 제막·문학동산 조성 기념식 광양시는 지난 9일 오후 광양읍 우산공원에 있는 이균영 문학동산에서 '하늘이 시샘한 작가, 이균영 문학비 제막 및 문학동산 조성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생가 근처에 조성된 '이균영 문학비·문학동산'은 2018년 문인이 중심이 되어 뜻있는 지역 각계에서 '이균영문학비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2020년 11월 준공됐으나, 코로나19로 제막식이 취소됨에 따라 2년 만에 추진했다. /광양=조순익 기자

## 순천시 서면 시정멘토단, 김장 담그기 일손 봉사활동

매년 지역 장애아동 위한 김장 담그기 일손 도와



순천시 서면 시정멘토단은 지난 9일 우석어린이집 원아를 위한 사랑의 김장담그기 일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김장담그기 봉사활동은 시정멘토단 회원들이 매년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의 일환으로 정성을 듬뿍 담은 김치

(400포기)는 지역 내 장애아동을 위한 든든한 겨울 양식이다. 서면 시정멘토단은 양성평등 명예명장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이만천 단장을 비롯해 전 회원들이 이른 봄부터 '지역 정원가꾸기'를 시작으로 경로당,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이·미용 방문서비스, 갑자·고구마 나눔 행사, 안부살피기 등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으로 살기 좋은 서면민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장성주 서면장은 "지역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매사에 적극적인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면에서도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일손 순천을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 김영록 지사, 장성아카데미 강단 선다

15일 '세계로 준비하는 대도약! 전남행복시대' 주제 강연



세계 최장 운영 기록을 수립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21세기장성아카데미' 강단에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사로 나선다.

전남 장성군은 오는 15일 열리는 21세기장성아카데미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세계로 준비하는 대도약! 전남행복시대'를 주제로 강연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국내의 상황을 돌아보고, 전남의 여건과 잠재력이 세계를 넘어서는 수준임을 강조한다. 전남이 지닌 강점을 활용해 세계와

경쟁하겠다는 포부도 밝힌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주도해 온 전남이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 방안도 제시한다. 올해로 28번째 열리는 21세기장성아카데미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사회교육 프로그램이다.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오후 4시 30분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강연이 열린다. 참여는 선착순 입장 또는 장성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된다. 아카데미와 동시에 진행되는 장성군 공식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으로 청강할 수도 있다. 문의는 장성군 평생교육센터(061-390-8577)로 하면 된다. /장성=심재식 기자

## 첨단도서관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광산구, 연간 1만2000kg 탄소저감 효과 기대



광산구는 첨단도서관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2022년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을 통해 도서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는 20kW 자가소비용으로, 생산된 전기를 우선 사용해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 연간 약 2만5400kWh의 에너지 생산이 예상된다. 이를 통해 1만 2000kg의 탄소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

사업은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민간 포함)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광산구는 2021년에 요양원, 경로당 등 3개소에 총 18.4kW의 태양광을 설치했다. 광산구는 2023년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사업 수요조사를 진행 중으로, 관심이 있는 공공·사회복지시설이 있다면 미래산업과 (062-960-3674)에 문의하면 된다. /이동기 기자

## 광양읍, 겨울맞이 훈훈한 나눔 잇따라

취약계층에 동절기 대비 든든한 식생활·온기 선물



광양시 광양읍은 날씨가 추워지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단체·개인의 겨울 선물이 곳곳에서 실시되면서 정성을 담아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광양교회에서 백미 20kg 10포 ▲광양읍교회에서 백미 10kg 30포 전달 ▲의명의 독지가가 백미 20kg 20포를 읍사무소 앞에 두고 갔으며 ▲도

다른 의명의 독지가는 한과에 취약한 가구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난방지원을 위한 현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광양읍 맞춤형복지팀은 후원물품(백미)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복지사각지대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며, 독거노인·위기가구 5명의 겨울 난방을 지원해 따뜻한 겨울을 선물했다. 김종호 광양읍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해주신 광양교회, 광양읍교회, 의명의 후원자에 감사드린다"며 "지역 내 취약계층에 후원물품을 전달해 따뜻한 동절기 준비를 돕겠다"고 말했다. /광양=조순익 기자

## 순천 삼산동, 다자녀가정에 이불 나눔

저소득 다자녀가정 11가구에 이불·김장김치 전달



순천시 삼산동마중물보장협의체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9일 관내 저소득 다자녀가정 11가구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불과 김장김치를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삼산동 마중물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및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 지역자원을 연계하고 나눔으로써 민관협력 나눔문화 전파에 힘써왔으며, 2018년부터 저소득 다자녀 가정 11가구에 '아이사랑, 키속속' 행복나눔

바탕'을 운영하며 5년째 온정을 전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심심일만 모은 삼산새싹봉사 후원금으로 운영, 매달 마중물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메뉴를 선정하고 재료를 준비해 만든 반찬을 각 가정에 전달한다. 김용주 마중물보장협의체 회장은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데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익 기자